

- 불교에서는 어떤 외부의 것이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한다.
- 십이인연중 네 번째는 名色이다.
- 名이란 정신이고, 色이란 물질이다. 식이 胎門으로 들어가면 胚芽가 만들어진다. 이 배아가 바로 명이자 색이다. 심리적 요소와 생리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탄생이란 정신과 물질의 결합이자 영혼과 육신의 합일이다.
- 십이인연중 다섯 번째는 六處다.
- 名色이 천천히 자라면서 작았던 배아가 태아로 변하고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이 형성된다. 이 6가지 감각기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체를 구성한다.
- 십이인연중 여섯 번째는 觸이다.
- 六處를 가지고 모태에서 나오면 六塵과 접촉하게 된다. 눈이 접하는 세상은 色塵이고, 귀가 접하는 세상은 聲塵, 코가 접하는 세상은 香塵, 혀가 접하는 세상은 味塵, 몸이 접하는 세상은 觸塵, 마음이 접하는 세상은 法塵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은 바로 이 6가지 진으로 이루어진다.
- 십이인연 중 일곱 번째는 受이다.
- 접촉은 느낌을 만들어 내고, 느낌에는 즐거운 것과 괴로운 것이 있다.
- <俱舍論>을 보면 8가지 聲塵이 여러 가지 느낌을 만들어 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 受란 일종의 분별력이다. 무엇의 분별일까? 좋고 나쁨, 아름다움과 추함, 높음과 낮음, 귀함과 천함 등의 분별이다.
- 십이인연 중 여덟 번째는 愛이다.
- 느낌이 생기고 좋고 나쁨의 분별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선택이 따라온다. 선택하고 나면 욕심이 생기고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여기에서 '愛'란 仁愛의 사랑이 아니라 偏愛의 사랑이다.
- 어떤 경서에서는 애에 喜, 怒, 哀, 樂, 愛, 惡, 慾 7가지가 있다.
- '愛'는 자아에 대한 집착, 즉 나에게 좋은 것을 사랑하고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은 사랑하지 않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 십이인연 중 아홉 번째는 取다.